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5 호 【루게 제 24418 호】 주 1 03 (2014)년 1월 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선물을 오가미 경이씨사무국장이 3일 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트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한 조선인민군의 수산부문을 일군들과 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열성자들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주체103(2014)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통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선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조선로동당은 지난해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현상을 창조하여 온 것을 축하하고 새해에 대해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선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확고히 보장하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역할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당과 혁명대의 통일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파괴를 해치는 새로운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각성있게 대하고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의 제도를 썩먹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적들의 사상문화침투행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인 민망은 《김정은령도자께서 2014년 신년사를 발표하시었다》라는 제목으로 우와 같은 내용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계속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군대원들이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제의신성을 지켜선 굳지드높이 새해의 영웅적전진길에 떨쳐나섰다. 천만장병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길 따라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번영을 위하여나가기 위한 올해의 장엄한 투쟁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혁명적열정으로 새창에 뛰어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결기모임이 4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모임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싸움준비완성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새창에 일으켜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령길동지, 인민무력부장 장정남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혁명투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장정남동지의 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인 노광철, 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하고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워나가는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35만산대발파 진행

높이에서 내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철정광산의 불길은 새창에 일으켜 나가는 무산의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무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망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강추위가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35만산대발파를 진행할것을 결의해나섰다. 당책임일군들은 로천분광산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뜻깊은 올해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내는데서 무산의 로동계급이 선봉적역할을 하고자 할것을 호소하였다. 대발파의 중요한 몫을 담당할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왔다. 이들은 최전선작업자의 보수정비를 짜고들며 착성기의 만가지 동을 보장하면서 천공속도를 높여나갔다. 또한 연합기업소기술집단과의 창조적협조로 경사선에 의한 새로운 천공방법을 연구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천공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면서도 발파에 들어가는 원료소비를 줄이고

탄광을 힘있게 지원 해복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항해복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2일 독창과 덕천지구 탄광들에 수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어 탄부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도당의 책임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탄광을 지원하고서 뛰고있는데 이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군급기관, 기업소들부터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사리원시, 서흥군, 은파군이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 강산에 희망찬 새해 주제 103(2014)년의 영웅적전군의 발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의 첫 진군길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보무당당히 힘차게 내짚은 천만군민의 양양된 혁명적열정과 창조적기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는 선군의 우리 조국땅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문패를 보관듯이 달기 위하여 현지도길을 위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지나가네 그리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당보에 우리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었다.

경제강국건설을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 선전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위훈창조로 들끓는 입터를 찾고 찾으시며 위대한 평도의 자욱자욱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헌없는 고마움과 그이의 평도만을 높이 받들어 하루빨리 이 땅위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활짝 꽃피울 천만군민의 총성의 맹세가 내 조국 강산에 깔없이 매어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뜻깊은 이 한해에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창조로 이끌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더 활짝 꽃피워주시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자, 바로 이것이 피눈물의 12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관철할 철의 의지를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견지하시는 총정의 신념이며 혁명적실천이다.

지난 2년간 찾고찾으신 일터마다에서 어비장군님의 현지도사적을 뜨겁게 새겨보시며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불길들 세 차게 지펴주신 우리의 불꽃이는 원수님이다.

주제 101(2012)년 1월 중순 평양민속공원전성장을 비롯한 인민군대과 말고는 여러 건설대상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건설대상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비장군님의 헌성의 념원을 품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건축물들의 시공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날의 혁명활동보도를 전해 듣고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고매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2(2013)년 7월

그해의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어서는 그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만든 현대적인 기계가 정답이었다고 하시면서 어비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대단히 만족하시었을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우리 원수님,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오실 때마다 늘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똑같은 심정이었고, 오늘 공장을 돌아보며 새 기계들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시며 장군님께 이 성과를 꼭 보고 드리겠다고 하시며 그 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현대적인 기계생산을 위하여 마음 써오신 어비장군님을 다시 뵈옵는것만 같아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었다.

경제부에서 이룩된 성과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날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비장군님의 고귀한 애국헌신의 로고부터 뜨겁게 마음 속에 새겨안으셨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창성군안의 지방산업공장을, 남흥철전화학연구소와 강계시안의 기계공장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모든 자욱자욱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한생토록 마음써오신 어비장군님과 함께 걸으신 현지도의 날과 달들이었다.

향로 지난 2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고찾으신 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일터들을 다 이르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어비장군님께서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현지도로정이 되고 우리 원수님 가시는 곳마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쌓으면 인민을 위해 안겨주어야 한다고 일꾼들과 로동계급에게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올해에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구호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포부와 리상, 평생의 신심과 착관을 안겨주는 세대의 전투구호는 지금 천만군민의 입장을 깔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전군을 다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당의 투쟁구호는 백승의 표대이다. 울바른 투쟁목표와 방향을 가리켜주고 백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투쟁구호는 언제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울려 잡으며 온 나라에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킨다.

올해의 투쟁은 인민의 이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승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의 전군이다. 우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열풍,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실현하여야 하는 선군조선의 전투적기상과 창조분배를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하여야 한다.

올해의 전투구호에는 당의 위업에 깔없이 총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깃들이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정일-김정일주의, 인민대중

의 선택을 가독히 체우고 건설자들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과학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의 높은 봉우리를 기어오를 때를 위하여 애국의 일념을 안고 기세충천하여 돌진하고있는것이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다. 새해의 전군경에서 힘있게 떨쳐지고, 여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고귀한 역사와 전통, 업적과 재부원을 빛내이며 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칙같은 신념과 의지가 깃들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대적도 단대에 처부실수 있는 백두산 혁명군인이 있고 자립성이 강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활력있게 발전하는 주체공업이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한 천만군민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창조와 위훈의 불바람이 더 세차게 일어날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농업부분과 건설부분, 과학기술부분이 앞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추르고나가며 그 불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

의 불길로 세차게 타탄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큰 옥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 꿈을 내걸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 전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것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대적도 단대에 처부실수 있는 백두산 혁명군인이 있고 자립성이 강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활력있게 발전하는 주체공업이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한 천만군민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창조와 위훈의 불바람이 더 세차게 일어날수 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대적도 단대에 처부실수 있는 백두산 혁명군인이 있고 자립성이 강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활력있게 발전하는 주체공업이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한 천만군민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창조와 위훈의 불바람이 더 세차게 일어날수 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대적도 단대에 처부실수 있는 백두산 혁명군인이 있고 자립성이 강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활력있게 발전하는 주체공업이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한 천만군민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창조와 위훈의 불바람이 더 세차게 일어날수 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대적도 단대에 처부실수 있는 백두산 혁명군인이 있고 자립성이 강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활력있게 발전하는 주체공업이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한 천만군민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창조와 위훈의 불바람이 더 세차게 일어날수 있다.

원수님 사랑하시는 벗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민사랑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은 젖어 다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로 돌아보실 때마다, 그이께서는 시공을 손색없이 정말 잘하셨다고, 무덤과 살림방, 서체에 비치된 가구들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윽고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시며 불어넣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비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겠다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께서 이 거리를 보시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는가, 이런 벗이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17일 우리 군에 대한 마지막 현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아로 행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방공업발전에서 창성군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1960년대 초에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창성군을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겠다고, 우리는 오늘도 창성군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창성군이

혜택을 남기지 않는 과학자들과 행복적인 모습을 그려보시며 크나큰 회의를 느끼시고 그 기쁨을 위대한 대원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찾으신에서도 30여년만에 펼쳐진 물고기대풍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호호한 광경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군인들이 배를 메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매번 매번 아무도 기쁘어 눈물을 흘리시던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부대원수님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배를 메는다고 좋아한다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런 벗이 혁명을 한다고 또 다시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더욱 훌륭히 우리 조국에 《역사적인 창성혁신회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자! 라는 의견과 고집적의 뜻을 발표하시어 온 나라에 지방공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불길이 더 세차게 타탄 지도록 하시였다.

우리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더욱 훌륭히 우리 조국에 《역사적인 창성혁신회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자! 라는 의견과 고집적의 뜻을 발표하시어 온 나라에 지방공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불길이 더 세차게 타탄 지도록 하시였다.

우리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더욱 훌륭히 우리 조국에 《역사적인 창성혁신회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자! 라는 의견과 고집적의 뜻을 발표하시어 온 나라에 지방공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불길이 더 세차게 타탄 지도록 하시였다.

우리 군을 돌아보시니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창성이 몰라보게 전변되었다고, 모든 군들에서는 창성군 속의 소중히 간직하고 여려라 해 군이 나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였다. 온 나라 도처에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분초를 다투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던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령 건설시회부를 조직해주신 고집적의 뜻을 발표하시어 우리 군을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푸리에대 필요한 설비와

본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체육인살림집, 류경구강병원, 국가과학원 천디 연구부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시령스키장...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은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어 지난해 그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몸소 한자한자 쓰신 역사적인 호소문으로 온 나라에 《마시령수도》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지게 하고 건설중의 공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대건설전과 전투를 전투에서 이끌어오신 우리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평도를 떠나 어찌 그 하나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생각조차 할수 있랴.

삼복의 무더위와 장마비, 한겨울의 맹편 추위속에서 멀고 험한 건설현장들을 찾기도 찾으시며 모든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손색없이 우리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의 건설대상을 위하여 무려 113건의 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의 참 뜻을 실천적모범으로 우리 일꾼들에게 깨우쳐주시며 천만군민을 전투에서 이끄시어 마련하신 김정은사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어!

그것은 위대한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불타는 총성과 고결한 애국헌신이 안아온 선군조선의 2013년의 기적이였다.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경탄하였다. 핵전쟁의 불기름을 시시각각 몰아오며 반공화국과독립살생극동에 미쳐달래던 미국과 온갖 인위들은 전멸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강위력한 지위무장력을 토포한 것은 선군의 우리 조국의 배짱과 당력, 질투같은 전진속도였다!

건설의 최전성기를 새로운 번영기로 이끌어갈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지난해 12월초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건설부문일꾼대강습을 마련해주시고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달 완공된 마시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에 이어 역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우리의 천만군민은 확신하고 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희망찬 새해 주제 103(2014)년에 펼쳐질 부강조국건설의 위대한 전변을, 그 우렁찬 창조와 건설의 대고향목과 더불어 이 땅위에 만발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평도 높은 기백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이끌어 일떠세우고 로동당만세소리를 우렁차게 울려라!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백배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본사기자 한영민

본사기자 한영민

본사기자 한영민

본사기자 한영민

뜻깊은 그날을 생각할 때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잊지 못하시던 우리 창성군을 자신의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여려라 해 군이 나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였다. 온 나라 도처에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분초를 다투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던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령 건설시회부를 조직해주신 고집적의 뜻을 발표하시어 우리 군을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푸리에대 필요한 설비와

우리 군을 돌아보시니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창성이 몰라보게 전변되었다고, 모든 군들에서는 창성군 속의 소중히 간직하고 여려라 해 군이 나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였다. 온 나라 도처에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분초를 다투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던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령 건설시회부를 조직해주신 고집적의 뜻을 발표하시어 우리 군을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푸리에대 필요한 설비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대풍을 이룩하자

《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김정은

군인기질, 군인분대로 수산성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얻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릴 것 같은 열의가 차넘치고있다.

수산성의 일꾼들이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보다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고기배들과 어구들의 상태, 어항조건 등 구체적인 실행을 료해하고 대책하기 위해 그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과 바다가양식사업소, 배우이전투장, 어구공장들, 과학연구기지에 달려나갔다. 가는 곳마다에서 일꾼들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나가자고 호소하면서 올해 물고기대풍을 안이온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지난해보다 몇배나 높은 물고기잡이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방법도도 치밀하게 세워지고있다. 보장조건을 따라세워 고기배들의 출어일수를 높이고 어구들을 현대화하는 사업, 앞선 어구탐색설비들을 갖추는 문제, 물고기하류설비와 보관시설능력확장,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이렇게 성의 일꾼들은 높은 수산물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세우고

년초부터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성적인 작전에 따라 일꾼들은 한계 대상적 말고 현지에 내려갔다. 그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며 공적인 앞장에서 인민군대지휘관처럼 전투적으로 일관을 전개하고있다.

각지 수산사업소들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의 기세 또한 충천하다.

서해안의 수산사업소들에서 많은 땅의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여 배수리실적을 높이고있으며 그에 의한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에도 용감한 관심이 돌리고있으며 행정설비들과 보관장들의 능력확장공사가 립체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동해안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고기배들의 성능을 높이고 배수리실적을 단축할 목적으로 수리기술의 설비를 보강하거나 자체로 꾸려 올해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동시 탐색선들이 바다에 나가 어항상태를 감시하면서 물고기배가 발견되면 고기배들을 자체없이 출항시킬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있다.

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들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할 비장한 열의를 안고 분발하여나섰다.

지난해 이 부분의 로동자들은 바다낚시조건이 불리하지만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다시마모내기 최적기에 외따닥 낚고 배반리를 짜고들어 풍요한 바다가양식을 마련하였다. 동시 해안의 드넓은 양식장들에서

8월25일수산사업소 어로공들처럼

◇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새해의 첫 걸음을 크게 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모두가 가슴마다에는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 수행하고야말 불타는 자각이 간직되어있다.
《지금 우리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열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졌으며 기어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 비장한 각오로 심장을 뛰고있습다.》

수산성 책임일꾼의 이야기이다.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에 새겨안은 성의 일꾼들은 정보부터 동해와 서해의 수산사업소들로 달려나갔다.

전국의 모든 수산사업소들의 일꾼들과 로동계급도 화선식으로 전투의지를 차지고 올해전투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릴 것만 단념의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고있다.

◇ 8월25일수산사업소 어로공들처럼, 바로 이 말속에 오늘날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당정책을 대하고 어떤 불굴의 정신력으로 당정책을 결사관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의 물고기를 잡아 수수만만에 처음 보는 물고기대풍을 이룩한 이곳 수산사업소들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보라.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어 낚과 밤이 따로 없는 백철불굴의 어로전투를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렸다.
오늘날의 생산물적은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위한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 우리 당이 제시한 정책과 방침은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바로 동해의 크지 않은 수산사업소에서 이룩된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수산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이곳 수산사업소들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처럼 비장한 자각과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 때 절망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물고기잡이성파로 당정안을 결사옹유하려는 철성의 의지를 안고 바다를 주름잡으며 물고기부려, 물고기사태를 안아온 8월25일수산사업소 어로공들처럼 자기의 열의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함호로 여기고 격전의 1분1초를 이어가야 한다.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에서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일꾼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신적지구를 벌림으로써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한다.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모든 작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수산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로동계급이여, 우리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애국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할대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다시마양식면적을 넓이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투적호소를 무한한 격동과 흥분

다시마양식면적이 늘어났다

속에 받아안은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 높이 세운 다시마생산계획을 기어 이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특히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모범을 본 받아 올해 바다가양식에서 통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다시마양식면적을 넓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생산 1, 2, 3, 4, 5 직장들이 있다. 지난해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모범을 충실하게 걸머진 재배어업직장을 비롯하여 다른 직장의 일꾼들도 양식공들과 함께 양식장

수산부문의 물질적토대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불이 붙었다.

바를, 어구, 띄우개생산기지의 정비보강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과학적인 어로전으로

수산성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잡고들라 단단히 하고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로동계급처럼 일관을 통이 크게 벌려 기어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 열의의 열의는 비상히 높다.

수산성에서는 물고기잡이목표를 높이 세우며 기초하여 어로작업의 과학화실현에 집중화화를 들어내고있다. 벌써 동해바다에 탐색선들이 떠서 고기배의 분포와 이동상태를 탐색하고있다.

물고기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좋은 과학기술적당도도 마련되고있다.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진행되고있는 위성정보에 의한 중심어장탐색프로그램발이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머지않아 위성정보에 의한 중심어장탐색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바다물온도, 바다물흐름 및 방향 자료 등을 제때에 정밀하여 수산사업소들의 지휘선들과 만나게 나가있는 어선들에 실시간으로 통보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성에서는 올해도 높은 고기배들에 어구탐색설비를 빠짐없이 갖추기 위한 조직사업도 치밀하게 진행되고있다.
일부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올해 어구탐색기기를 현대화수준이 높은것으로 갱신하여 어로전의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성의 일꾼들이 현지에 나가 세계적인 어로발전추세에 맞게 기술준비를 갖추는 사업을 힘있게 밀어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인민군대의 모범, 물고기잡이에서도 으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지난해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비상한 각오와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흐트란 물고기부려, 물고기사태를 안아오는 자랑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네이빠도

만 마련 방공화국 대통령
레인 세 인 각 하

나는 만마련 66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만마련방공화국의 변영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3(2014)년 1월 4일 평양

송고한 뜻 심장에 새기고

재령군 래리량위원회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할 전투장투가 벌어지는 것을 용감히 받들고있다.

리량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필승의 무기, 만능의 보검으로 확고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관선동의 능수

평양기초식품공장 선동원 최명희동무

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중학교에 다닐 때 미술 소조에서 배운 지식을 발휘하여 직관선동을 진행하였다. 한눈에 안겨오면서도 생산자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전투적선동을 써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실천과정에서 느낀 그는 배두산미술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과 당부의 사론을 비롯한 기사들을 부지런히 학습하면서 자신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여나갔다.
이런 때 새로 공장에 온 초급당서사가 그의 남다른 붓글씨를 발견하고 청년중앙회관 미술 소조에서 배우도록 도와주었다.
최명희동무는 자신의 미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양하게 배우고 배워 직관선동의 명수로 준비하게 되었다. 그는 직장과 작업반의 곳곳에 직관선동을 만들고 배두산미술위원들의 위대성자료를 보충하고, 3대혁명붉은 깃발 휘둥둥 결의목표, 전투적선동을 제시해나갔다. 그리고 교양자료

에게 편지를 쓰곤 하였다.
《이제라도 당장 달려가 안아 주고싶은 나의 아들 김요하야. 이 밤은 네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느라고 너를 따뜻이 끌어주는 못한다. ...》
백두산위원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신 다음 지름 목치준 사랑을 몇배로 보상하였다. ...》
최명희동무는 이런 마음으로 선동원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온 공장에 소문난 직관선동의 능수로 지라나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감사를 보내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으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최명희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힘있게 떨쳐나선 직관선동과 종업원들의 충진군기를 적극 고무추진하는 직관선동활동을 기동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준석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대기념비들

우리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기념비적장조물들이 많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주제건축의 발전력을 전하며 오늘날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하고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위대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만수대대기념비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삼지연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업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서사시적화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념비들이다.

만수대대 기념비는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제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충정의 마음을 담아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인 만수대언덕 위에 건립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인 만수대언덕에 그 위치도 정해주시고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가르치심을 주시었

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만수대대기념비는 아버지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업적,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투쟁모습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기념비로 훌륭히 완성되어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는 주제 61(1972)년 4월에 제작되었다.

왕재산대기념비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는 항일혁명투쟁선과 사회주의혁명 및 사회주의건설선 부주제 조각상들로 이루어진 기념탑이 배치되어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뒤에는 백두산을 형상한 조선훈형막돌판 정면벽화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뒤에는 백두산을 형상한 조선훈형막돌판 정면벽화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뒤에는 백두산을 형상한 조선훈형막돌판 정면벽화가 있었다.

대기념비에 모셔진 위대한 선군님들의 동상들은 만민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한손을 높이 들어 창공을 가리키시는 높이는 수령님과 새 세기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무궁

대할 선군조선의 앞길을 촉촉히 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부주제 조각상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승리적전진과정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정령 만수대대 기념비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솟아 빛나는 기념비적장조물이다.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은 주제 56(1967)년 보천보전투승리 30돐에 즈음하여 광강도 해산시에 세워진 혁명전통기념비이다.

기념탑은 휘날리는 붉은 기발을 형상한 탑신의 정면과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탑신뒤리에 청동부각으로 형상한 대인물군상을 형상하고있다.

한손에 쌍안경을 드시고 백로자락을 날리시며 대오의 맨 앞자리에 서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슬염한 모습에는 조선훈형의 승리를 승려로 이끌어나가는 시를 탁월한 령도자, 군사전략가로서의 위대한 포모가 뚜렷이 구현되어있다.

아버지수령님을 옹위하며 전진하는 유격대원들을 형상한 정면군상과 탑신을 중심으로 동서양쪽에 전개된 부주제 조각상들은 유격대원들과 우리 인민이 지닌 끝없는 충실성, 백혈불굴의 투지와 혁명정신, 고상한 혁명적동지를 등을 돌וק한 구성과 상징적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천만민국의 심정에 꺼칠한 돌은 보천보의 불길과 더불어 주제의 혁명전통을 심어주는 시

대의 걸작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기념비들 가운데는 주제 68(1979)년 5월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으며 건립된 삼지연대기념비도 있다.

삼지연대기념비 시대의 걸작, 만집려려 기념비로 높은 사상에술적정신을 빛내기에 된것은 그 규모와 조형예술적형상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주제시대의 대걸작물, 세계적인 기념비이다.

왕재산대 기념비도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훌륭히 건립되었다.

대기념비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상과 중심군상, 불화탑으로 이루어진 기본주제상, 중심군상과 불화탑을 중심으로 전개된 부주제군상들인 전투원과 원호선, 왕재산혁명사적비, 수령님의 동상과 좌우의 승가상, 중심군상을 벗어나 언덕길에 세운 화강석부각군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넓은 고양마당 스텝, 루지와 꽃밭, 울창한 수목이 그 주위에 조화롭게 배치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걸쳐 기념비의 형상창조와 관련한 설계도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완성시켜주시었다. 더마나 조국의 최북단 온성까지 찾아오시는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왕재산대기념비는 짧은 기간에 왕재산혁명사적지에 들어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로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으며 주제 64(1975)년 10월에 훌륭히 완공되었다.

왕재산대기념비는 한손을 높이 추켜드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외로 확대하여 조국방복을 이룩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동상과 불화탑을 중심으로 하여 기념비의 요소들이 반원형의 병풍처럼 전개된 독특한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높이 솟은 탑신과 세재계 타오르는 불길은 형상면 불화는 기념비의 주제사상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며 조형적용장상을 보장하는 중요구성요소로 되고있다. 유격대원들과 각계층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중심군상과 부주제군상들, 승가상들도 기념비의 주제사상을 폭넓게 보여줄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왕재산대 기념비는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독창적인 대기념비형식으로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이밖에 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비롯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제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기념비들이 수없이 많다.

이 기념비적장조물들은 오늘도 거역할 수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예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전통을 출기차게 이어나감에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새우갈 불타는 결의를 다져주시었다.

의는 넓은 사각형의 천을 한 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갈수 있게 구멍을 내어 몸에 걸치는 옷류형이다. 끈으로 허리에 감아 천을 고정시켰는데 소매가 없는 옷이다. 인디아의 《판초》가 여기에 속한다. 이 시기 옷형식은 공평적인것은 옷의 구멍이 매우 단순하고 옷자락이 가지

있는 형태가 특별히 없다는것이다.

일찍이 인류문명의 첫 시기부터 대동강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옷에서 소소한 멋을 찾았다. 유행하던 《유(저고리)고(바지)》라고 하는 《입은 옷》을 갖추었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이전시기에 벌써 판두의보다 더 발달한 《포》(견 갈옷)를 입었으며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간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바지저고리는 구멍에서 옷과 아래로 나내어졌다. 옷으로서의 저고리는 앞중심이 타쳐지고 여미어 입게 되어 옷을 입거나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가학부 실장 한주명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얼마전 통영에서 우뚝 솟아오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찾은 우리가 재료과학부 실장 박사, 부교수 한주명동무의 집에 들어섰을 때 마침은 가족이 모여있었다.

궁궐같은 집에서 희망의 새해를 맞은 기념과 환화가 온 집안에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은 후대들을 조국의 귀중한 혁명인재로 키워내는 혁명가들입니다.»

박사는 가장이 자랑도 많다. 한주명동무는 지난 기간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거둔 성과로 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재능있는 교육자이다.

특별운성에 일하는 딸 한은주동무와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사위인 김영수동무는 다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였다. 알고보니 이들은 김일성청년연맹상 수상자들이었다. 이들 부부도 한결 돋보였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 천성일동무의 모습 또한 그 얼마나 미더운가.

«정말 영광과 행복속에 흘러온 한해였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더듬으며 한주명동무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영예하는 현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

보람의 마음으로 불타는 밤

«이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즐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 날 교단에 서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많은 행복의 결정을 올리시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은 긍지로 설레입니다.»

정영이 첫겨울녘서 또한 감동에 젖어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그는 새집들이하러 날부터 너무도 꿈만 같아 며칠밤을 뜰노로 새웠다고 하면서 누구나 교육자살림집을 두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한다는것이었다.

«강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교육자안해들의 남모르는 수도도 다 해리시어 이런 궁궐같은 사랑의 집을 안겨 주시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눈물이 납니다.»

정영이 사랑속에 새해에도 이들이 누리게 될 행복의 높이, 영광의 높이는 또 그 높이를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같이 받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몸바쳐가겠다는 은 가족의 결의로 좋았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인민의 꿈과 희망을 찬란한 천설로 꽃피워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심장깊이 새기며 보람의 마음으로 불타는 교육자의 가정에 밤 깊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본사기자 공로혁



당 앞 활판리국 연용공공소에서 혁명사적지건설을 벌여내려주시는 근로자들이

마감건재의 발전동향

1월에 진행하는 주말체육경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새세기에 걸맞게 체육경기 선진전투적업무를 펼쳐야 판활하기 위한 충고로서 들끓는 시대의 승격을 더욱 돈구어주며 1월에 평양체육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말체육경기가 벌여지네 된다.

국내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저격기가 26일에는 압록강림과 기관차역사가 이날 나자승리기가 진행되게 된다.

본사기자

오염방지 등과 관련한 성질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물질문화정신생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는데 따라 마감건재에 대한 요구도 무난히 높아지고있다.

이전에는 건축물의 마감에 타일장식, 인조석, 유장제칠을 하였지만 지금은 유리질마감건재, 자기질마감건재, 금속마감건재, 건축자갈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살림집을 지을 때에도 벽돌을 쌓거나 세멘트마감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든 부재를 가져다 조립하고 마감건재를 붙이는 식으로 하여 로력을 얼마 들이지 않고 질과 속도를 보장하고있다.

마감건재의 발전동향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복합화의 방향으로 나가고있는것이다.

이전의 마감건재는 석회, 석고, 천연석재, 세멘트와 같은 한가지 재료에 기초하여 만든것이었다면 오늘의 마감건재는 이러한 재료에 첨가제, 색감, 접착제, 섬유질재 등을 혼합하는가 여러가지 재료들을 복합하여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천연무늬의 자갈, 석고장식, 인조석재, 석회복합판, 석회판, 복합유리타일과 같은 마감건재를 살려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기능화의 방향으로 나가고있는것이다.

마감건재는 종전과 같이 일반

적으로 결면을 마감하고 장식하는 기능뿐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건강을 도모하거나 생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간의 여러가지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이전에는 마감건재가 주로 장식의 기능만을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보온, 방음, 방습, 방화, 먼지흡수력, 자외선차단, 방사선차폐, 항균, 자외선차폐, 공기정화, 오존발생, 일산화탄소흡수, 자재정도와 같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다기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는 생활조건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지능화의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벽면마감조, 날이 어두워지면 자레로 빛을 내보내고 날이 밝으면 그에 따라 빛을 조절하는 벽지를 살려들 수 있다.

벽화무늬의 주변에는 고구려가 427년에 집안으로부터 수하도록 옮기면서 건설하였던 안학궁과 대성동에서 발굴된 100여여기의 고구려무덤들이 분포되어 있다.

새로 발굴된 대성동 벽화무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본 조선옷의 우수성

회적생활환경을 반영한 옷형식이 창조되었다. 그러한 옷형식들은 해당 시기의 문화사상성징과있다.

인류문명의 여러 발전들에서 알려진 대동강문화도 훨씬 발전된 《유(저고리)고(바지)》라고 하는 《입은 옷》을 갖추었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이전시기에 벌써 판두의보다 더 발달한 《포》(견 갈옷)를 입었으며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간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바지저고리에는 구멍에서 옷과 아래로 나내어졌다. 옷으로서의 저고리는 앞중심이 타쳐지고 여미어 입게 되어 옷을 입거나

의는 넓은 사각형의 천을 한 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갈수 있게 구멍을 내어 몸에 걸치는 옷류형이다. 끈으로 허리에 감아 천을 고정시켰는데 소매가 없는 옷이다. 인디아의 《판초》가 여기에 속한다. 이 시기 옷형식은 공평적인것은 옷의 구멍이 매우 단순하고 옷자락이 가지

있는 형태가 특별히 없다는것이다.

일찍이 인류문명의 첫 시기부터 대동강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옷에서 소소한 멋을 찾았다. 유행하던 《유(저고리)고(바지)》라고 하는 《입은 옷》을 갖추었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이전시기에 벌써 판두의보다 더 발달한 《포》(견 갈옷)를 입었으며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간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바지저고리에는 구멍에서 옷과 아래로 나내어졌다. 옷으로서의 저고리는 앞중심이 타쳐지고 여미어 입게 되어 옷을 입거나

대성동에서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

2.7m, 동서너비 1.55m로서 장방형을 이루고있다.

남아있는 안벽의 높이는 동쪽벽이 1.1m, 서쪽벽이 0.7m, 남쪽벽이 0.77m, 북쪽벽이 0.93m이다.

무덤의 안벽은 동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있으며 남쪽끝에는 2개의 작은 돌을 수직으로 세워 안벽의 막음돌로 하였다.

안벽 바닥면의 안쪽에는 진흙다발을 한 후 여미것의 판석을 수에 잇어 한쪽으로 깔았으며 바깥쪽은 석회와 진흙을 혼합하여 바닥다음을 하였다.

안벽의 벽은 적당히 가공된

중국인 명산-대산

중국인 명산-대산

중국인 명산-대산

중국인 명산-대산

풍력에너지를 리용의 발전추세(2)

풍력에너지를 리용의 발전추세(2)

풍력에너지를 리용의 발전추세(2)

아시아 22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아시아 22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아시아 22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조국통일은 민족사의 업속한 부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아 안은 해내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열력은 근 70년에 달하고있다.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민족분열을 하루빨리 끝내주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겨레앞에 나선 신성한 의무이며 민족사의 업속한 부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지를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인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간곡한 유훈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은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얻어주게 위하여 생의 마지막시까지 온갖 고고와 실패를 다 마지않고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친 해주신 민족공공의 통일대강이 있고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있어 우리 겨레는 시련과 난관을 헤쳐 오고 비관과 좌절을 모르고 신심과 용기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즐기게 될라야 할것이다.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을 하루 빨리 실현할 때만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부강번영을 앞당겨 나갈수 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이다.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우리의 겨레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실천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닦아나 우리 세대에 맡겨져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근본특성이다. 민족은 피폐하고 언어, 문화와 역사 등으로 맺을 수 없이 편견된 운명정부를 이룬다. 우리 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은 단일민족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도 세계에 유일한 분열민족으로 남아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그로 인하여 민족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은 유지되고있다. 전권적법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이 확립되지 못한탓에 우리 민족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났었다. 해내의 온 겨레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을 단호히 끝내주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외세에 의하여 근 70년간이나 국토가 갈라지고 민족이 분열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적발전은 고사하고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다.

원래 우리 나라는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자연부원으로 보나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런데 민족의 분열은 부강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통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하고있다.

나라의 자연부원이 민족의 발전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에 리용되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조국을 통일하여야 이 비극을 끝낼수 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궁극적목적은 전권적법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족공공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서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주요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적선이다.

우리 겨레는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과업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공의 리익과 공동된 민족적선리와 강경으로 맺을 수 없이 연결되어있다.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살아야 할세력적인 어디에도 없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의 민족이 대치되어있는데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강도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천개발사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생존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안녕하십니까> 벽보게시투쟁이 새롭게 전개되어 각계의 지지정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벽보를 대학후문에 붙였다. 그는 글에서 수천명의 파업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면서 청년영화화를 반대하여 학생이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보수당국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는 밀양강철발전소 건설, 대동강 건설기부 등 보수집권세력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청년학생들이 더 이상 엄혹한 사회현실을 외면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원래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 남조선당국을 규탄하는 벽보의 제목으로 등장한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 보수당국의 전횡을 그다지 강경의 수단은 근로인민과 정치는 편안하지 못하고 질탈과 미판, 원한과 분노속에 날파 달을 보내야 하는 남조선의 현악한 사회현실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류다른 벽보가 나뉠수록 그에 공감한 고려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저마다 당국의 악정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담은 글들을 앞을 닦아두어 게시하여 삼시간에 대학후문의 담벽을 짙게 붙였다. 그는 글에서 수천명의 파업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면서 청년영화화를 반대하여 학생이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보수당국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는 밀양강철발전소 건설, 대동강 건설기부 등 보수집권세력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청년학생들이 더 이상 엄혹한 사회현실을 외면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평화와 발전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자

아시아나 국가 및 정부수반들 신년사에서 호소

아시아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새해 2014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타이쿠왕 부비발 아들이라예는 전권TV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 행복과 번영,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바라는 타이인민들의 염원을 하나와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공동의 리익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민족의 위업을 정의로운 길로 추진하고 모두가 넘치는 행복과 번영, 평화에 이도할것이라고 밝혔다. 케냐대통령 미엘 케냐이만은 새해에 케냐인들에게 평화와 안

정기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러하면 모든 주민들이 단결하며 하나로 모이게 한다고 인명하였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비니 무케리는 각계층 주민들이 단결하여 나라의 발전과 장성의 집적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으나 만대통령 테인 시엔은 올해에 모든 정치세력들이 의견이상을 해소하고 민족적화해를 단합을 실현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몽골대통령 짜이하인 엘베그도르지는 새해에 정부가 모든 활동을 국민들에게 부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그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할수 있도록 사회적불만을 조성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말레이시아수사장 닷 스리 모하마니지비 빈 툰 하지 아브 둘 라자르는 말레이시아의 미래는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달려있다고 하면서 올해 정부는 이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족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싱가포르수리 시엔 총리는 지난해 나라의 경제가 3.7% 성장하였다고 하면서 정부가 새해에 설립문제해결과 보건, 교육발전이 계속 관심을 둘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모든 두를 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일 감정 고조

중국에서 최근 일본집권자의 야스우노 전총리의 관하여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중국의 <광주일보> 지난해 12월 28일 부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여도를 포함한 일본파의 싸움에서 강경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비율이 75%에 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파렴치하게 돌아대지 말아야 한다

얼마전 일본 히가시사카이시당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일본군위안부 조각상이 설치된것과 관련하여 <합의표시>를 한다. <학생과교직원들을 중단>한다 하며 소송을 피했다. 미국의 글렌데일시는 일본의 히가시사카이시와 자매관계를 맺고있다. 두 도시의 교류계획에 따라 일본의 고등학교학생들이 글렌데일시를 방문하는것은 근 20년째 계속되어온것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본당국에 의해 중지되고말았다. 말로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교류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유치한 변명을 불과하다. 그리되면 이 저들과 관계가 깊은 도시 한반도에 일본군위안부조각상을 세운데 대한 앙심이 있다.

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역사에는 크고작은 침략행위들과 전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있지만 자기 나라 침략군주들의 동률적책임과 침략열기를 북돋아준다고 하면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한두명도 아닌 20만명의 다른 나라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다닌 아픈흔은 잊혀지지 않았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범죄는 이 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무서운인륜적범죄이다. 이것을 깨끗이 청산하는가 아니라 하는가 하는것은 너성의 인성과 존엄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정치적도덕적문제인 동시에 국제법적문제이다. 법적으로 투대형한인륜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행에 대해 사회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외면하고 아직까지도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는 일본의 처사는 초조비인 도리조차 지킬수 모르는 그들의 도덕적저열과 침범피성을 세계앞에 드러내놓는 꼴과판을 빚어낸것이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대를 이어가며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도 모자랄 행위를 저지른 일본이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면전에서 호하려 머리를 뺏았이 쳐들고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오사카시청장 하시모토의 망언이 그 대표적징계이다. 그가 일본군성노예가 당시로서는 필요했다느니 뭐니 하고 인조로서, 정치가로서 상상도 할수 없는 독설들을 연이여 쏟아놓아 경악을 자아냈는 사람들은 그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하시모토가 세계적인 격변을 불러일으키는 추악한 정변을 마구 내뿜고 아무런 기색을 느끼지 않고 정계에서 제노라 하고 싶어하고있는것은 역사기록행위가 일본에서

한국의 정치풍조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과거범죄를 정당화하고 미화분식하는 움직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저들의 과거죄악을 뒤집어엎기 위한 불의이 판관들이 벌어진다. 그 앞장에는 닦아나온 일본 집권자가 서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간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것을 비롯하여 중국국제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정의의 사관이라고 부정한것 등 아베가 공개석상에 나타나 떠벌리대변하는 하나같이 과거범죄를 부인하고 무시무시한 군국주의열풍을 몰아오는 망언들뿐이다.

일마련에는 NHK방송에 출연하여 헌법개정은 <나의 전생의 일이다. 무엇을 위해 정치가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룩하였다. >느니 뭐니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아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시기에는 국유인본자들을 막무대내로 존중하던 일본의 전권계층이 오늘에 와서는 양장에서 로골적으로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고있는것이다. 폭우에 부는 물은 발뒤꿈치로 흐르거나 내리마는 파도처럼 넘쳐넘는다. 이세부터가 과거범죄를 반성할줄 모르는 파렴치한, 군국주의판정자이다보니 아베가 대외적으로 당시의 목숨을 버리고 무사귀환을 미처들어가고있는것이다. 어지러운 정치풍조에서 지나려는 것은 군국주의노예들, 정신적기형아들뿐이다.

일본전쟁범죄는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역사를 부정하면 나라가 망한다. 일본이 지금처럼 지난날의 전쟁범죄를 부처하며 제정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에게 제일없는 국제적분류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이것은 파렴치한 역사기록행위를 미쳐달라는 일본전쟁범죄에 대한 시대와 민심의 엄한 경고이다. 【조선중앙통신】

이러한 슬픈정황을 근위대의 고위지휘관이 얼마전 한 집회에 와서 연설하면서 미국관리들의 망발을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관리들이 이란에 대한 모든 신념들이 락우에 있으며 이란이 저들의 제재와 압력에 굴복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한낱 허위라고 불구하라고 하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실패하였던 세계에서 제일 큰 패배였으며 미국이아랍로 정치, 경제, 군사분야에서 완전히 붕괴에 직면해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 관리들의 망발 배격

미국 관리들이 이란에 대한 모든 신념들이 락우에 있으며 이란이 저들의 제재와 압력에 굴복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한낱 허위라고 불구하라고 하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실패하였던 세계에서 제일 큰 패배였으며 미국이아랍로 정치, 경제, 군사분야에서 완전히 붕괴에 직면해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구관배격받는 미국의 무기공급만행

미국은 <테러분자>들을 소탕하는데도 값싼 무기들을 사용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함을 대신하여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여러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무기를 적극 개발리 용하고있다. 무기는 인류에게 적지 않은 리익을 가져다주었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하자원탐사에는 물론 방사성분류에도 무기를 리용하려 하고있다. 사람들은 앞으로 무기가 인류 문명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거나 거나 다른 문명발전이 벌어져야 할 현대과학기술의 산아인 무기를 사람들이 악용하는 나라도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테러금지소탕>이라는 구실밑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무차별적인 무기공급을 들어내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공급은 현 미행정부시기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발행된 <2중보행>이라는 도서에 의하면 오바마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후 <반테러>의 미명하에 강화된 무기공급은 파키스탄에 3 2 6차례, 에멘에서 9 3차례, 소말리아에서 수차례에 달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주장대로 무기공급대상이 과연 <테러>가

인류역사에 길이 빛날 수령영생헌법

남조선 각계층이 칭송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주의헌법을 태양의 존함으로 더욱 빛내주시기 위하여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남겨놓은 오늘도 전해가고있다.

법률가 김영일은 글에서 <김일성주석을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모시고 그분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을 법문화한 김일성헌법의 채택, 공포는 세상을 뒤흔들어놓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근대헌정사는 백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어느 나라 역사에도 국가지도자의 업적을 성문화하여 국가의 기본법으로 채택한례는 없었다.>

김일성헌법의 채택, 이는 정말 역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파격적인 정치진동이 아닐수 없었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은 <김일성헌법을 제정해주시여 주석님의 존함이 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였습니다. 평등자님의 그 순결무구한 도덕리심에 이념이중은 반복하였다고 한결같이 격찬합니다.> 김일성헌법의 제정으로 태양의 빛이, 이민위천의 승화된 위엄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마음은 이북바로앞에 회원들의 심장속에도 간직되어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토론회를 가진 회원들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명명된 이북의 헌법은 조모마나 민족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이 화려했다고 하면서 그 위엄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러면서 이북에서 수령존대, 민주중시의 최고법정이 나올수 있는것은 김일성국방위원장께서 계시때때문이라고 칭송하였다.>

헌정연구회 회원 강인길, 정치학교수 김민석도 <수령의 사상과 건국업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영원토록 빛내어도록 한 김일성헌법이야말로 인류헌정사에 길이 빛날 대가기념비>, <세상사람들이 평등자님의 충정에 격경을 금치 못하며 김일성헌법을 수령영생헌법이라고 칭송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서울의 한 주민은 <주석님으로 모시는것을 범 문화하신 김일성장군님의 그 순결무구한 도덕리심은 오늘도 끝없는 경경을 자아내고있다. 어찌없는 장군님의 충정은 그러도위대하고 순결하며 그러도 뜨겁고 실려온것이다.>고 격조높이 실정을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 법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북의 헌법에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국방위원장의 이념위천의 사상이 그대로 집대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북의 헌법은 세계최고의 민주중시헌법이며 그 바탕에는 김일성주석님의 애민철학이 놓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을 우리러 터지는 남조선 각계층의 칭송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한 케이리리 온 남녘땅에 울려 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반<정부>민심을 반영한 벽보게시투쟁

한 사회현실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류다른 벽보가 나뉠수록 그에 공감한 고려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저마다 당국의 악정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담은 글들을 앞을 닦아두어 게시하여 삼시간에 대학후문의 담벽을 짙게 붙였다. 그는 글에서 수천명의 파업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면서 청년영화화를 반대하여 학생이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보수당국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는 밀양강철발전소 건설, 대동강 건설기부 등 보수집권세력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청년학생들이 더 이상 엄혹한 사회현실을 외면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원래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 남조선당국을 규탄하는 벽보의 제목으로 등장한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 보수당국의 전횡을 그다지 강경의 수단은 근로인민과 정치는 편안하지 못하고 질탈과 미판, 원한과 분노속에 날파 달을 보내야 하는 남조선의 현악한 사회현실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류다른 벽보가 나뉠수록 그에 공감한 고려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저마다 당국의 악정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담은 글들을 앞을 닦아두어 게시하여 삼시간에 대학후문의 담벽을 짙게 붙였다. 그는 글에서 수천명의 파업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면서 청년영화화를 반대하여 학생이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보수당국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는 밀양강철발전소 건설, 대동강 건설기부 등 보수집권세력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청년학생들이 더 이상 엄혹한 사회현실을 외면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안녕하십니까》가 남조선에서 피피보수계단을 규탄하는 유행어로 된것은 당국의 악행을 더이상 참고 보고만 있을수 없어 투쟁에 떨쳐나선 각계층인민들의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안녕하십니까》벽보게시투쟁은 현 보수집권세력의 퇴행을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민심의 뚜렷한 반영이다. <남조선당국이 아직도 분노한 민심을 가려보지 못하고 전횡을 부리면서 파초목에 땅뭏기가 났던것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뒷걸이.> 남조선인민들은 민심을 거스리며 반역행위를 열을 올려서 피피보수계단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 단죄

팔레스티나수석협상자 사에브 에카라트가 지난해 12월 29일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계곡에 있는 유대인정착촌들에 저들의 법을 적용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팔레

스티나는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요르단계곡의 지역들을 저들의 소유로 만듦에는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들은 평화회담을 파기할뿐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 미군의 무기공급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이 미군에 대한 미군의 무기공급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자국의 자주권과 유엔헌장, 국제법에 대한 관철한 유엔으로 된다고 단죄하고 이를 반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미국의 무기공급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세계를 울려나오고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은 무기공급에 의한 민간인살해사건으로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 때마다 <오욕이나, 공격대상이 <테러분자>들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어 미국은 저들의 무기공급이 전체적으로 테러를 줄이는데서 크게 효과를 나타내고있다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중앙정보국 장관은 무기공급이 역사적으로 <질서정연하며 침묵하여 조침히 진행>되었다고 떠벌리었다. 한마디로 저들의 무기공급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정당하다는것이이다. <그야말로 철권파행위만미 제정수 있는 꾀변이 아닐수 없다.> <반테러>의 미명하에 감행되

가운데 이러한 기대와는 거나 거나 다른 문명발전이 벌어져야 할 현대과학기술의 산아인 무기를 사람들이 악용하는 나라도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테러금지소탕>이라는 구실밑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무차별적인 무기공급을 들어내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공급은 현 미행정부시기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발행된 <2중보행>이라는 도서에 의하면 오바마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후 <반테러>의 미명하에 강화된 무기공급은 파키스탄에 3 2 6차례, 에멘에서 9 3차례, 소말리아에서 수차례에 달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주장대로 무기공급대상이 과연 <테러>가

소음을 리용한 전기생산기술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소음을 리용한 전기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소음을 리용하여

소음을 리용한 전기생산기술 개발

에너지를 얻을수 있는 압전장치를 새롭게 만들었다. 압전재료로는 알루미늄이 압전하는 매우 예민하고 얇은 막

소음을 리용한 전기생산기술 개발

을 리용하였는데 이 막은 소음을 이용한 진동을 전기로 전환시킬수 있는 매우 이렇게 얻은 전기 소음 감지장치이다. 【조선중앙통신】